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2017

01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매일묵상 Q.T. 누가복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충현의 만나

Contents

- 2 1월 일정표
- 4 매일묵상 사용안내
- 6 기도제목표
- 7 매일묵상 Q.T.
- 71 영어본문말씀

「충현의 만나」는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Q.T. 교재입니다.

01

2017 JANUAR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전교인 신년감사예배 제1차 성찬식	2 전교인	3 17교구	4 9교구	5 18교구	6 2교구	7 전교인 교회일꾼 연합영성훈련
8 전교인	9 전교인	10 7교구	11 1교구	12 10교구	13 14교구	14 전교인
15 전교인	16 전교인	17 11교구	18 3교구	19 12교구	20 4교구	21 전교인
22 전교인	23 전교인	24 13교구	25 5교구	26 15교구	27 6교구	28 전교인
29 전교인 선교주일	30 전교인	31 16교구				

교회 주요 일정

1월 1일(주일)	신년감사예배(주일 1~4부) / 제1차 성찬식
1월 7일(토)	교회일꾼 연합영성훈련
1월 29일(주일)	선교주일

1월, 개인 전도 계획

‘충현의 만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도록 매달 발행되는 Q.T.(Quiet Time) 소책자이다. ‘충현의 만나’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새벽기도회의 본문을 기준으로 ‘본문 해설’과 ‘묵상 질문’, ‘적용 질문’의 형태로 구성된 ‘충현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1. 첫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목을 정하라

우선 본문을 읽은 후,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각 문단의 핵심단어나 구절을 찾아 표시하고 본문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만들거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 잘 알 수 있다. 충현의 만나 매일묵상은 2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측 상단의 날

짜 옆에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될 만한 구절을 뽑아 제목으로 달아 놓았다. 본문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제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묵상하는 중에 본문의 주제를 더 적확(的確)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스스로 제목을 만들어 빈칸에 적어보는 것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본문의 배경을 살피라

본문을 쓴 인간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왜 기록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정보는 성경 본문 안에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 각 권의 개요를 설명한 책이나, 성경 사전, 혹은 도서관에서 주석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피하는 게 좋다. 많은 사이버, 이단들이 자신들의 블로그 등에 이단 교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는 해설을 퍼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문의 의미를 구체화 하라(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밝히라)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본문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2.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

말씀을 묵상한 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옛 생각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내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

가까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으로 점진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 보려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2~3).

- ① 어떠한 음부의 권세와 이단 세력도 흔들지 못하는 시온성과 같은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총현교회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 ③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되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소서.
- ④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및 해당 교구 전도, 동역교회 전도 지원 사역에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동참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에 온 성도가 동참하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 ⑥ 각 교구와 부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 ⑦ 담임목사 청빙위원회가 철저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 ⑧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담임목사님이 청빙되도록 인도하소서.
- ⑨ 장로·안수집사·권사 피택자들이 교육을 통하여 복음으로 온전히 깨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⑩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가의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남북통일이 복음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해유 나로 이해표

영광의 신성한 오순절의 성령의 선물

영광의 신성한 오순절의 성령의 선물

매일묵상 Q.T.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1

주 일

표적이 되기 위하여

본문 누가복음 2:34~40 찬송가 105장

>>> 본문 해설

시므온은 아기 예수께서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 흥할 것이지만 그를 반대하는 자들은 멸망당할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는 아기 예수를 가리켜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백성의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박해와 곤욕을 치르시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와 그의 복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가는 곳마다 비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비방을 받듯이 성도도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비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핍박을 받음으로써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런 핍박을 이겨 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선지자 안나가 등장합니다. '안나'라는 이름은 '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긴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철저한 헌신을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소망 곧 메시아를 기억하며 기도했던 여인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제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쌓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소서.

³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³⁵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³⁶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³⁷ 과부가 되고 팔십사 세가 되었더

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³⁸ 마침 이 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³⁹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⁴⁰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도 여느 아이처럼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지혜가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두 살의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와 세상 부모와의 관계에 모두 충실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갈수록 사랑스러워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에서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고통까지도 누구보다 더 잘 아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더 온전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라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⁴³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⁴⁴ 예수께서 열두 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⁴⁵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⁴⁶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⁴⁷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⁴⁸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⁴⁹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⁵⁰ 그의 부모가 보고 놀

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⁵¹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⁵²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⁵³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⁵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제 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은 곧 나타나실 예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을 예비시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 일을 위한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길에 많은 무리들이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루는 것임을 강조 하였던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소서.

1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곧 본디
 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래와 드
 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
 레네의 분봉 왕으로, 2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3
 요한이 요단 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4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
 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5 모든 골짜
 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
 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6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7 요한이 세례 받으
 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
 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

라 하더냐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
 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9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
 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0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
 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 대답하여 이르
 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11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
 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
 리이까 하매 12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
 지 말라 하고 13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
 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요한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묘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장차 심판의 주가 되실 것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요한은 먼저 그의 사역과 그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의 사역의 차이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즉, 그는 종의 사역 곧 그의 신들매 푸는 사역마저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밝히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내려 주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께서 불처럼 우리의 죄로 오염된 부분을 정결케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요한의 예언은 오순절에 성취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 날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께서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시고 악인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으로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소서.

⁶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므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⁷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 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¹⁷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¹⁸ 또 그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

하였으나 ¹⁹ 분봉 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²⁰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²¹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²²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본문에 기록된 예수의 족보는 예수로부터 소급해 올라가서 다윗과 아브라함 그리고 전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창조주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기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족보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 주는 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께로 회복될 것을 증거합니다. 즉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의 은혜의 초청은 모든 인류에게 미치며 그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리라는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족보는 예수께서 아담의 자손으로서 인류 가운데 한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첫째 아담과 대조하여 하나님께 순종했던 둘째 아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하나님의 자손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써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²³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삼십 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²⁴ 그 위는 맛닷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²⁵ 그 위는 맛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낙개요 ²⁶ 그 위는 마앗이요 그 위는 맛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²⁷ 그 위는 요아난이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²⁸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²⁹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맛닷이요 그 위는 레위요 ³⁰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아김이요 ³¹ 그 위는 멜레야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맛다다요 그 위는 난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³² 그 위는 이새요 그 위는 오벧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³³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³⁴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아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훔이요 ³⁵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³⁶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삿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³⁷ 그 위는 므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아렐이요 그 위는 마할랄엘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³⁸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따라서 이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그의 인성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일로 인하여 예수께서 완전한 복종을 배우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예수께서 굶주렸다는 사실을 알고 음식에 관한 시험, 즉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하였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천한 만국에 속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하였습니다. 결국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했던 것은 첫째 아담을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말씀(신 8:3, 신 6:13)을 통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성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만들고, 거짓 중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뿐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통해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이길 힘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소서.

¹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²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 ³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⁵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⁶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⁷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⁹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¹⁰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¹¹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¹²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¹³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위에 강림하시고 광야에서 그를 인도하셨던 성령께서 다시금 그를 갈릴리로 강하게 인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늘'이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지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현재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61장 1~2절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 그 메시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 즉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같은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며 세상의 심판주로서 장차 재림하리라는 약속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굳게 믿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¹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¹⁵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¹⁶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¹⁷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기를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¹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¹⁹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²⁰ 책을 덮어 그 말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²¹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²²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²³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시 의사이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²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²⁵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삼 년 육 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²⁶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²⁷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²⁸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²⁹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³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오라'는 단 한 마디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주문을 외운다거나 다른 이의 권위를 끌어들이지 않으시고 단지 그의 권위로 명령하셨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귀신은 전혀 저항하지 못한 채 항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귀신들의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라는 질문과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로마에 대항하는 혁명가들의 지도자로 추대할 것을 염려하신 것이고, 둘째, 진실한 신자들이 그의 메시아적 사역을 보고 참된 권위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릇된 방법으로 알리는 것, 즉 귀신이 비록 그가 누구인지 안다 해도 귀신들에 의해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명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 즉 불의와 폭력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같은 모습에서 그가 이미 악한 영을 정복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무기력한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더 나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³³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 일에 가르치시매 ³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³⁵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³⁶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³⁷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³⁸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가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³⁹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일일이' 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베풀 때는 대부분 개인적으로 고쳐 주신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사역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기 위해 한적한 곳에 나가셨습니다. 본절의 '날이 밝으매' 를 마가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캄캄하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께서 이때에 기도하신 것은 그가 기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즉 조용하고 외진 곳을 찾아가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신 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바쁘더라도 때로는 조용하고 외진 곳을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귀음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으며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³⁸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³⁹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⁴⁰ 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⁴¹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

짚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앎이려라 ⁴² 날이 밝으매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⁴³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⁴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세리 레위를 제자로 삼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하류 계급인 어부들과 백성들에게 손가락질받던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병자들을 고쳐 주신 사건은 그가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초대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구원의 필요를 깊이 느끼는 자들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신 것은 회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회개란 완전한 변화, 즉 지·정·의(知·情·意)와 행동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구세주로서 맞이했던 모든 자들은 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예수를 가리켜 랍비 또는 그보다 더 큰 지식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를 지닌 '선생'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 '주'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이 한 인간이라는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그는 예수께서 진정으로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죄있는 인생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기까지는 참 지아를 발견할 수 없으며 진정한 회개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회개케 하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¹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²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³ 예수께서 한 배
 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
 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⁵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
 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
 리이다 하고 ⁶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⁷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
 게 되었다라 ⁸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
 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⁹ 이는 자
 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¹⁰ 세베대의 아
 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
 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
 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
 리라 하시니 ¹¹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
 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당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고, 영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병의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도움을 주기는커녕 희생자를 비난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12절). 이 말이 너무나 소극적인 것 같지만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를 조심스럽게 타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병환자는 다른 사람이 불식간에라도 접촉할까봐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내며 다녔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환자의 불결이 옮겨오는 대신 예수님의 성결이 그에게 옮겨가 나병이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증상치료가 아니라 근원치유이며 온전한 치유였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회복까지도 포괄하는 전인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고쳐 주신 후에 가장 먼저 당시 제사장에게 가서 회복 확인을 받으라고 명하신 것은 주님은 비록 자신의 능력으로 치유를 하셨으나 기존 종교의 권위와 질서도 존중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은 그분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주님은 소문이 날수록 사사롭게 능력을 행하는 일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16절)에 힘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영예를 얻는 길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능력을 더 구하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육질한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¹²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대 하니 ¹³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¹⁴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

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¹⁵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 자 하여 모여 오되 ¹⁶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오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질병과 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이용하여, 주님께서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증거 하신 사실을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려온 사람들은 대부분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17절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집에서 예수님이 여러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어가고 했으나 이미 가득 채우고 있었고 미처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온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달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19절).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20절). 예수님이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 병이 나았다"가 아닌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본 목적은 병이 낫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은 죄와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일인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중풍병자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육신적인 질병도 함께 치유되었습니다.

>>> 기도 제목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으로 인해 영적 중풍병자의 모습으로 있지 않게 하소서.

¹⁷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¹⁸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¹⁹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²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²¹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나 ²²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²³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²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²⁵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²⁶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주님께서 세리였던 레위(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매우 용기 있는 일로 평가됨과 동시에 주님이 사람을 택하여 쓰시는 기준이 사람과는 전혀 다름을 보여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위하여(29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고 더불어 자신의 동료 세리들을 초대했다. 세리들은 로마정부를 위해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들이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부패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눅 19:1~10). 그런 이들과 예수님은 식사교제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비교하며 세리와 죄인과 식사하는 것과 금식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구약에서 유일한 금식의 날은 속죄의 날 하루였습니다(레 16:29). 세례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했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월, 목요일) 금식하기까지 했습니다(눅 18:12). 이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행동에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제자들의 행동을 문제로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금식과 기도하지 않는 행동은 불신앙의 행동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38절)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과 유대지도자들이 추구하고 따랐던 방식은 결코 혼합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곳에 주의 구원이 임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낡은 율법주의를 버리고 오직 새 부대를 준비하여 새 포도주를 담게 하소서.

²⁷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 하시니 ²⁸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²⁹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³⁰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³¹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³²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³³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

다 ³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³⁵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³⁶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³⁷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³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³⁹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본문에는 안식일 논쟁의 불씨가 된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은 일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일입니다. 5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안식일은 분명 생명에 관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식일을 인간의 전통이나 체제의 문제로 만들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 신앙을 정당화하는 것이야말로 생명과 진리를 거스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9절)”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은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드러내고 자유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생명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와 연관된 것이었을 뿐입니다.

안식일을 생명과 자유의 문제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새 교훈입니다. 이것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묵은 포도주의 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새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은혜의 세계는 우리의 행함의 여부로 인해 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인한 십자가의 피가 하늘의 의가 되어 우리를 덮고 있는 세계입니다.

>>> 기도 제목

전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머무는 삶이 되게 하소서.

¹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어 먹으니 ²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³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⁴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⁵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⁶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⁷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

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⁸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⁹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¹⁰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¹¹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15

주 일

열둘을 택하여

본문 누가복음 6:12~26 찬송가 459장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특별히 열두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밖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13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 보다 잘 이루어지도록 제자들 중에 일부를 따로 사도라는 이름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는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12절)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새로 임명한 12명의 사도와 함께 많은 제자들이 있는 평지(17절)로 내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온 많은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많은 병든 자들은 병 고침을 받았고, 더러운 귀신의 지배아래서 영혼이 상했던 자들이 온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19절).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애통해하고 심지어 배척을 당하게 되는 제자들의 미래를 보시면서 오히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배불러서 웃고 떠드는 부자들을 향해서는 화가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새로운 통치자의 도착입니다. 새로운 세계관의 습격입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 기댄 대가가 이미 취하여 부하고 배부르고, 이 세상의 성취 때문에 웃고 즐기고 칭찬을 받느라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도 않고 구주의 선물을 외면한 이들에게 복음이 되는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대와 불화하고, 이 세대가 약속한 보장을 거절하고, 이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자에게만 예수님은 복음이 되십니다. 하늘에서 보상이 클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오늘도 가난하고 굶주리고 애통해하고 배척을 당하게 되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소서.

¹²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¹³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
 여 사도와 칭하셨으니 ¹⁴곧 베드로라고도 이
 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
 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¹⁵마태와 도
 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
 몬과 ¹⁶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따는 자
 될 가롯 유다라 ¹⁷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
 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
 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
 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¹⁸더러운 귀신
 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¹⁹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
 러라 ²⁰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
 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²¹지금 주린 자
 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
 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
 을 것임이요 ²²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
 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
 도다 ²³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
 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
 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²⁴그러나 화 있을진
 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²⁵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
 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
 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
 다 ²⁶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
 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본문은 평지 설교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원수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친절을 베푸는 예가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보상을 바라고 걸어서 선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마음으로 용서하고 더 나아가 그를 위해 축복을 기원하는 일은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기도하라”(28절)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원수 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안에서 영생의 축복을 주신 그 사랑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자선과 동정 역시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을 염두에 두고 행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35절)고 가르치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시는 그 은혜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자선, 그것이 기독교 자비의 척도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웃을 비판치 말고 구하는 것을 풍성하게 주라고 하십니다(37~38절). 죽어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38절의 “주라”는 참된 제자도를 의미하며 “주리라”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라는 당시 랍비 문학에서 즐겨 쓰던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즉 “후히 되어…주리라”(38절)는 말쑥은 곡식 가마니에 곡식을 담은 풍성함을 연상시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는 하늘을 덮을 정도로 크고 놀랍습니다. 받은 은혜를 베푸는 거룩한 삶을 소망하십시오.

» 기도 제목

오늘 하루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27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9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겹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30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31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2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나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나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나 죄인들도 그

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35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6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37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본문은 이른바 평지수훈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네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또는 복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증거 해야 할 사람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신앙의 열매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첫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는가?(39절) 둘째, 왜 자기 눈 속의 들보는 안 보이는가?(41절) 셋째,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43절) 넷째, 주춧돌 없이 집을 지을 수 있는가?(48절) 네 가지 질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선생이 되십니다. 참된 선생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구원을 얻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나무에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됴됨이는 그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회개하고 거짓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초월적인 삶의 윤리를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는 그 마음에 선을 쌓는 자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열매, 즉 성령의 열매(갈 5:22~23), 빛의 열매(엡 5:9), 의의 열매(빌 1:11; 약 3:18), 선한 일의 열매(골 1:10)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참된 제자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은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참된 제자는 믿음의 기초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의 시험을 견딜 수 없으며, 마지막 심판 날에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고 따르며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³⁸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 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 하겠느냐 ⁴⁰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⁴¹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⁴²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 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⁴³ 못된 열매 맺는 줄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⁴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 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⁴⁵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⁴⁶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⁴⁷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⁴⁸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부딪치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⁴⁹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춧돌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탁류가 부딪치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18

수요일

말씀만 하사

본문 누가복음 7:1~10 찬송가 357장

>>> 본문 해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장로들을 보냅니다. 장로들은 백부장의 공로를 제시하며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공로를 제시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주라고 고백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낮게 하소서”(7절).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로 하인이 나올 것을 믿는 믿음, 절대 순종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임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시더라도 종이 나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직접 오시는 것은 그분의 권세와 직분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것이며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주되신 예수님이 능력으로 말씀만 하시면 병이 고쳐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놀라셨습니다(9절). 그리고 무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수님의 주되심과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이는 후에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 나갈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응답이 있습니다. 병든 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 기도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 주시
 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라 ²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
 게 되었더니 ³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
 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⁴이에 그들이 예
 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⁵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
 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⁶예수께서 함
 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
 장이 벳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⁷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
 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⁸나도 남의 수
 하에 든 사람ियो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
 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⁹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
 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¹⁰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아 있었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 일행이 나인이라는 마을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마침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고 동네 사람들이 큰 때를 지어 과부와 함께 상여를 따라 오고 있었습니다. 나인성 장례 사건은 앞선 단락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의 내용 죽을 병에 걸린 종을 치료하지만, 나인성에선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여기 나오는 과부는 그런 종류의 믿음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백부장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나인성의 과부와 예수는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저 성경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13절)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울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공감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공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공감의 능력은 이제 우리가 부정하고 속되다고 구별하는 모든 것을 부수는 힘이 되고, 끝내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한 죽음 앞에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 죄인을 죽음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는 죄를 사함 받고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 기도 제목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¹²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¹³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¹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

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¹⁵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¹⁶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¹⁷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세례 요한은 해룻의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신속하게 어둠의 권세와 불의의 세력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자기도 구출이 될 줄 알았는데 옥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니 회의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20절)를 묻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에 대하여 의심한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는 병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서는 애곡하는 것이나 질병이나 고통이 없을 것이라는 종말론적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22~23절).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알림으로서 자신이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인 것을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고 예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할 것과 겸비할 것을 촉구함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에 그분의 오심을 예비한 자였기에 옛 시대에 속한 자 중 가장 큰 자였습니다(26절). 예수님은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을 인용하시며 그 예언이 요한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27절).

>>> 기도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게 하소서.

¹⁸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¹⁹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²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쭙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²¹ 마침 그 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²²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²³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²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²⁵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²⁶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²⁷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 목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하십니다. 요한은 구약과 신약, 약속과 성취의 전환점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며 이전의 선지자들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렸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기에 큰 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새로운 시대에 속한 사람은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에 더욱 큰 자들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였기에 백성과 세리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했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훌륭한 종교인들이었지만, 그 종교적 자부심과 고집, 자존심, 자기 의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세례요한이 회개와 금식을 선포하자 '귀신이 들렸다'며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시자 이번에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며 공격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다며 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앞세우고, 회개 보다는 평가와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 기도 제목

말씀 앞에서 나의 의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의 자존심과 고집을 회개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²⁸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²⁹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³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³¹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³²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

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³³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³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³⁵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와 중 한 사람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사랑 없는 형식적인 초대이기에 시몬은 관례적으로 제 공하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으며 예수님을 무시하고 천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아 은혜를 깨달은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마을에서 소문난 죄인이었지만 초대받지 않은 잔치에 용기있게 들어가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입을 맞추며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 그 발에 부으며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탕감 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을 각각 탕감 받은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이 더 사랑합니다. 은혜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배, 봉사, 헌금, 말씀 묵상, 기도, 섬김 등 모든 나의 일상의 삶과 종교적인 행동들이 예수님을 향한 진심어린 사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를 간구합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진심으로 죄인들의 친구 되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 기도 제목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를 섬기게 하소서.

³⁶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³⁷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³⁸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³⁹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⁴⁰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⁴¹이르시되 빛 주는 사람에게 빗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는데 ⁴²값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⁴³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

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⁴⁴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⁴⁵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⁴⁶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⁴⁷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⁴⁸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⁴⁹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⁵⁰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을 섬기던 여자들은 악한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은 영적인 것 뿐 아니라 실제로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구원하는 능력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여자들은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소유와 물질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자체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직접적으로 빼앗아 가기도 하고(길가밭), 시련으로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기도 하며(돌밭),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도(가시밭)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할 수 있습니다(15절).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말씀을 빼앗기 위해 시련과 유혹과 염려와 향락의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굳게 붙잡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허락된 말씀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바쁜 일들 때문에 중요한 일을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매일 나의 첫 생각이 주님과 하나님 나라이며 오늘 나의 첫 소원이 예배이며 오늘 나의 첫 언어가 예수님이며 오늘 나의 첫 행동이 기도가 되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 기도 제목

날마다 부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씨를 사탄의 공격,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향락과 시험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소서.

¹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²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³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⁴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⁵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⁶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⁷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⁸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

는 들을지어다 ⁹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¹⁰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¹¹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¹²길 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¹³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¹⁴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¹⁵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등불을 켜는 목적은 감추기 위함이 아니고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16절). 그래서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도 숨겨지거나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나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17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천국의 완전한 모습은 감춰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완전하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까지 우리는 감춰진 비유들 같은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헤아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성으로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가는 그것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18절). 나는 말씀을 들을 때 늘 피곤해하며 졸거나 다 아는 이야기라고 피상적으로 지나치듯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자주 넘어지고 자주 낙심하고 자주 기쁨 없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혈통의 가족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선포하십니다(21절). 사탄의 방해가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있음을 깨닫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내로 굳게 잡아야 합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주의 깊게 듣고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 충만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¹⁶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¹⁷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¹⁸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

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¹⁹ 예수와 그의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²⁰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²¹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기적을 통해 비유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드러내십니다. 이 사건은 엄격한 의미에서 자연 기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 관한 기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성취시키려는 예수님과 이를 방해하는 풍랑으로 표현된 사탄의 방해 세력 사이의 싸움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유사한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는 것처럼(눅 4:35)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도(24절) 꾸짖으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이 나갔을 때 사람들은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눅 4:36) 라고 했고 풍랑이 잠잠해졌을 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눅 8:25)라고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꾸짖어 굴복시키신 권세 있는 명령을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도 사용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단순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제압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여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폭풍을 만나 꼼짝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풍랑의 어려움보다 더 전능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는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찬양합니다.

》》 기도 제목

폭풍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믿음으로 잘 견디어 내게 하소서.

²²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²³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²⁴제자들이 나아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

이다 한대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²⁵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은 거라사의 군대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심으로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이 귀신들린 사람의 폭력적이고 자해적인 행동들을 강조하는데 비하여 누가복음은 수많은 귀신이 들린 청년의 완전하고립되고 비인간화된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청년은 몸은 살았으나 집을 떠나 옷을 벗고 죽음의 세계,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택할 수 없고 수많은 군대같은 귀신들에 의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죽은 자처럼 비참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처럼 사탄에게 지배당하며 고통 받으면서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절망과 비참으로 가득 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깊이 사랑하셔서 무서운 영의 세력을 끊어 주십니다.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무시무시하며 군대같은 강력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모든 세력을 무력화시키며 굴복시키시는 위대한 권세가 있으십니다.

누가복음은 청년에게서 귀신이 떠난 사실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33, 35, 38절).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었던 청년을 주님이 만지시니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변화되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불쌍한 인생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주시면 주의 구원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 같았던 나를 구원해주시고 회복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깨닫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 주소서.

²⁶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²⁷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²⁸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자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²⁹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³⁰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³¹ 무자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³² 마침 그 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

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³³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³⁴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³⁵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³⁶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³⁷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³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³⁹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중에, 열두 해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만 만지기만 해도 그녀의 12년 된 불치의 병 혈루증이 나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눅 6:19)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녀의 확고한 믿음의 행함으로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었을 때 혈루증이 즉시 그쳐버리고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확신하며 실제로 믿음의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으나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을 믿었던 혈루병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옷을 만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육체의 병, 현실의 문제보다 더 고통스럽게 하는 죄에서 놓임을 받게 됩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현실도 건디어 내며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 기도 제목

불치병과 같은 나의 삶의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아와 치유 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 주소서.

⁴⁰ 예수께서 돌아오시매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⁴¹ 이에 회당장인 아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⁴²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⁴³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⁴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⁴⁵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

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⁴⁶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이로다 하신대 ⁴⁷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⁴⁸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 목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누가는 특별히 혈루병 여인의 회복과 아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두 기적을 한 이야기처럼 연결하여 기록하여서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불가능과 죽음과 같은 완전한 절망이 지배는 곳에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아이로에게 와서 딸이 죽었으니 이제 더는 소망을 갖지 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아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눅 8:50) 죽은 아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표적을 통해 장차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실 일을 나타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여도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위로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죽은 것 같은 이 시대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인 것을 믿으십니까?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순복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생명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매일을 살기를 원합니다. 돈이 없어 슬프고 몸이 아파 괴롭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며 ‘예수 믿는데도 왜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라며 비웃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매일 산 자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 기도 제목

믿음으로 이기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며 기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⁴⁸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⁴⁹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⁵⁰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⁵¹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⁵²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⁵³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⁵⁴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⁵⁵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육체적 치유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교회의 사역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로 죄로부터의 자유와 죄로 말미암아 병든 그 영혼과 육체까지 온전히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죄의 종이 되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억눌려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선포하며 영적인 구원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그런 교회가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 여행시 가장 기본적인 것들(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 벌 옷 등)을 가져가는 대신 복음 전도를 받는 사람들의 대접에 의존하라고 하십니다(4절).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보호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12제자들은 사람들이 영접을 하든 그렇지 않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상관없이 그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힘 있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나의 일상의 삶이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통해 천국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헤롯은 크게 당황하며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아가 나타났다,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는 다양한 소문으로 인한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 기도 제목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파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¹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²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³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⁵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

를 삼으라 하시니 ⁶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⁷ 분봉 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⁸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⁹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행한 모든 사역의 보고를 받고 따로 한 적한 곳을 찾아 벧새다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돌아온 제자들과 함께 쉬고자 하셨습니다(막 6:31). 그러나 무리들이 알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11절).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특별히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료했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병이어 기적이 단순히 육체적인 굶주림을 채워주는 기적이 아니라 심령의 굶주림,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서 살면 모든 부족함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 가져도 늘 허무와 고독 속에서 영혼의 굶주림을 면할 수 없습니다. 빈들에서 오천 명에게 떡과 고기를 주어 배불리 먹게 하신 것처럼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진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오천 명을 배불리 먹고도 열두 바구니나 남는 풍성함으로 변하였습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예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드리는 믿음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자격이 없어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어요'라는 말 대신 '나의 작은 능력과 나의 자격 없음을 주님이 쓰셔서 주의 복음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며 헌신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 기도 제목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마음을 드려 주의 백성을 먹이고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12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쭙니 데리시고 따로 뱃새다라는 고
 을로 떠나 가셨으나 13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
 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
 라 14 날이 저물어 가매 열두 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15 예수께서 이르
 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
 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

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16 이는 남자가 한 오천 명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오십 명씩 앉히라
 하시니 17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18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
 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
 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19 먹
 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
 에 거두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기도하시던 중에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18절). 제자들은 무리들에게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반응과 정보들(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 지를 물으셨습니다(20절). 이 물음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20절)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정확한 본질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마 16:16).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21~27절, 44~45절, 18:31~34).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같은 주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종교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사명까지 주어졌습니다(23절).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더욱 복된 인생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지식입니다.

» 기도 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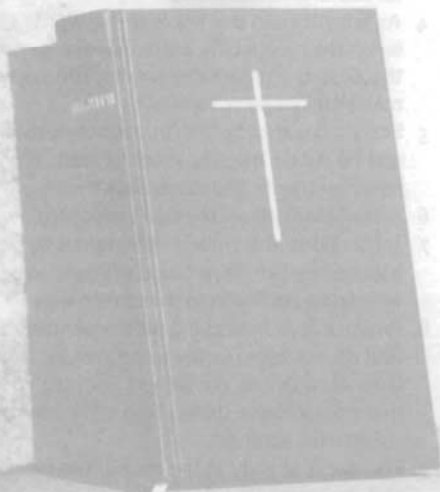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¹⁹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²⁰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²¹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²²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²³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²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²⁵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²⁶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²⁷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²⁸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성경공부

영어본문말씀

And the third row was a window which was filled with wood, and the space of God was upon her.

Luke 24:32

Every year his parents went to Jerusalem for the Feast of the Passover. And when he was twelve years old, they went up to the feast according to the custom. After the feast was over, while his parents were returning home, the boy Jesus stayed behind in Jerusalem, but they were unaware of it. After three days they began to search for him, and they found him in the temple, sitting in the midst of the teachers, and listening to them, and asking them questions.

1월 1일 주일

Luke 2:34~40

- 34 Then Simeon blessed them and said to Mary, his mother: "This child is destined to cause the falling and rising of many in Israel, and to be a sign that will be spoken against, 35 so that the thoughts of many hearts will be revealed. And a sword will pierce your own soul too."
- 36 There was also a prophetess, Anna, the daughter of Phanuel, of the tribe of Asher. She was very old; she had lived with her husband seven years after her marriage, 37 and then was a widow until she was eighty-four. She never left the temple but worshiped night and day, fasting and praying.
- 38 Coming up to them at that very moment, she gave thanks to God and spoke about the child to all who were looking forward to the redemption of Jerusalem.
- 39 When Joseph and Mary had done everything required by the Law of the Lord, they returned to Galilee to their own town of Nazareth.
- 40 And the child grew and became strong; he was filled with wisdom, and the grace of God was upon him.

1월 2일 월요일

Luke 2:41~52

- 41 Every year his parents went to Jerusalem for the Feast of the Passover.
- 42 When he was twelve years old, they went up to the Feast, according to the custom.
- 43 After the Feast was over, while his parents were returning home, the boy Jesus stayed behind in Jerusalem, but they were unaware of it.
- 44 Thinking he was in their company, they traveled on for a day. Then they began looking for him among their relatives and friends.
- 45 When they did not find him, they went back to Jerusalem to look for him.
- 46 After three days they found him in the temple courts, sitting among the teachers, listening to them and asking them questions.

47 Everyone who heard him was amazed at his understanding and his answers.

48 When his parents saw him, they were astonished. His mother said to him, "Son, why have you treated us like this? Your father and I have been anxiously searching for you."

49 "Why were you searching for me?" he asked. "Didn't you know I had to be in my Father's house?"

50 But they did not understand what he was saying to them.

51 Then he went down to Nazareth with them and was obedient to them. But his mother treasured all these things in her heart.

52 And Jesus grew in wisdom and stature, and in favor with God and men.

1월 3일 화요일

Luke 3:1~14

1 In the fifteenth year of the reign of Tiberius Caesar--when Pontius Pilate was governor of Judea, Herod tetrarch of Galilee, his brother Philip tetrarch of Iturea and Trachonitis, and Lysanias tetrarch of Abilene-- 2 during the high priesthood of Annas and Caiaphas, the word of God came to John son of Zechariah in the desert.

3 He went into all the country around the Jordan, preaching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4 As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words of Isaiah the prophet: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straight paths for him.'

5 Every valley shall be filled in, every mountain and hill made low. The crooked roads shall become straight, the rough ways smooth.

6 And all mankind will see God's salvation.'"

7 John said to the crowds coming out to be baptized by him, "You brood of vipers! Who warned you to flee from the coming wrath?"

8 Produce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 And do not begin to say to yourselves, 'We have Abraham as our father.' For I tell you that out of these stones God can raise up children for Abraham.

9 The axe is already at the root of the trees, and every tree that does not produce good

fruit will be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 10 "What should we do then?" the crowd asked.
- 11 John answered, "The man with two tunics should share with him who has none, and the one who has food should do the same."
- 12 Tax collectors also came to be baptized. "Teacher," they asked, "what should we do?"
- 13 "Don't collect any more than you are required to," he told them.
- 14 Then some soldiers asked him, "And what should we do?" He replied, "Don't extort money and don't accuse people falsely--be content with your pay."

1월 4일 수요일

Luke 3:15~22

- 15 The people were waiting expectantly and were all wondering in their hearts if John might possibly be the Christ.
- 16 John answered them all, "I baptize you with water. But one more powerful than I will come, the thongs of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untie.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with fire.
- 17 His winnowing fork is in his hand to clear his threshing floor and to gather the wheat into his barn, but he will burn up the chaff with unquenchable fire."
- 18 And with many other words John exhorted the people and preached the good news to them.
- 19 But when John rebuked Herod the tetrarch because of Herodias, his brother's wife, and all the other evil things he had done,
- 20 Herod added this to them all: He locked John up in prison.
- 21 When all the people were being baptized, Jesus was baptized too. And as he was praying, heaven was opened
- 22 and the Holy Spirit descended on him in bodily form like a dove. And a voice came from heaven: "You are my Son, whom I love; with you I am well pleased."

1월 5일 목요일

Luke 3:23~38

- 23 Now Jesus himself was about thirty years old when he began his ministry. He was the son, so it was thought, of Joseph, the son of Heli,
- 24 the son of Matthat, the son of Levi, the son of Melki, the son of Jannai, the son of Joseph,
- 25 the son of Mattathias, the son of Amos, the son of Nahum, the son of Ešli, the son of Naggai,
- 26 the son of Maath, the son of Mattathias, the son of Semein, the son of Josech, the son of Joda,
- 27 the son of Joanan, the son of Rhesa, the son of Zerubbabel, the son of Shealtiel, the son of Neri,
- 28 the son of Melki, the son of Addi, the son of Cosam, the son of Elmadarn, the son of Er,
- 29 the son of Joshua, the son of Eliezer, the son of Jorim, the son of Matthat, the son of Levi,
- 30 the son of Simeon, the son of Judah, the son of Joseph, the son of Jonam, the son of Eliakim,
- 31 the son of Melea, the son of Menna, the son of Mattatha, the son of Nathan, the son of David,
- 32 the son of Jesse, the son of Obed, the son of Boaz, the son of Salmon, the son of Nahshon,
- 33 the son of Amminadab, the son of Ram, the son of Hezron, the son of Perez, the son of Judah,
- 34 the son of Jacob, the son of Isaac, the son of Abraham, the son of Terah, the son of Nahor,
- 35 the son of Serug, the son of Reu, the son of Peleg, the son of Eber, the son of Shelah,
- 36 the son of Cainan, the son of Arphaxad, the son of Shem, the son of Noah, the son of Lamech,
- 37 the son of Methuselah, the son of Enoch, the son of Jared, the son of Mahalalel, the son of Kenan,
- 38 the son of Enosh, the son of Seth, the son of Adam, the son of God.

1월 6일 금요일

Luke 4:1~13

- 1 Jesus, full of the Holy Spirit, returned from the Jordan and was led by the Spirit in the desert,
- 2 where for forty days he was tempted by the devil. He ate nothing during those days, and at the end of them he was hungry.
- 3 The devil said to him, "If you are the Son of God, tell this stone to become bread."
- 4 Jesus answered, "It is written: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 5 The devil led him up to a high place and showed him in an instant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 6 And he said to him, "I will give you all their authority and splendor, for it has been given to me, and I can give it to anyone I want to.
- 7 So if you worship me, it will all be yours."
- 8 Jesus answered,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 9 The devil led him to Jerusalem and had him stand on the highest point of the temple. "If you are the Son of God," he said, "throw yourself down from here.
- 10 For it is written: " 'He will command his angels concerning you to guard you carefully;
- 11 they will lift you up in their hands, so that you will not strike your foot against a stone.'"
- 12 Jesus answered, "It says: 'Do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 13 When the devil had finished all this tempting, he left him until an opportune time.

1월 7일 토요일

Luke 4:14~30

- 14 Jesus returned to Galilee in the power of the Spirit, and news about him spread through the whole countryside.
- 15 He taught in their synagogues, and everyone praised him.
- 16 He went to Nazareth, where he had been brought up, and on the Sabbath day he went into the synagogue, as was his custom. And he stood up to read.

17 The scroll of the prophet Isaiah was handed to him. Unrolling it, he found the place where it is written:

18 "The Spirit of the Lord is 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each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freedom for the prisoners and recovery of sight for the blind, to release the oppressed,

19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20 Then he rolled up the scroll, gave it back to the attendant and sat down. The eyes of everyone in the synagogue were fastened on him,

21 and he began by saying to them, "Today this scripture is fulfilled in your hearing."

22 All spoke well of him and were amazed at the gracious words that came from his lips. "Isn't this Joseph's son?" they asked.

23 Jesus said to them, "Surely you will quote this proverb to me: 'Physician, heal yourself! Do here in your hometown what we have heard that you did in Capernaum.'"

24 "I tell you the truth," he continued, "no prophet is accepted in his hometown.

25 I assure you that there were many widows in Israel in Elijah's time, when the sky was shut for three and a half years and there was a severe famine throughout the land.

26 Yet Elijah was not sent to any of them, but to a widow in Zarephath in the region of Sidon.

27 And there were many in Israel with leprosy in the time of Elisha the prophet, yet not one of them was cleansed--only Naaman the Syrian."

28 All the people in the synagogue were furious when they heard this.

29 They got up, drove him out of the town, and took him to the brow of the hill on which the town was built, in order to throw him down the cliff.

30 But he walked right through the crowd and went on his way.

1월 8일 주일

Luke 4:31~37

31 Then he went down to Capernaum, a town in Galilee, and on the Sabbath began to teach the people.

32 They were amazed at his teaching, because his message had authority.

33 In the synagogue there was a man possessed by a demon, an evilspirit. He cried out at the top of his voice,

34 "Ha! What do you want with us, Jesus of Nazareth? Have you come to destroy us? I know who you are--the Holy One of God!"

35 "Be quiet!" Jesus said sternly. "Come out of him!" Then the demon threw the man down before them all and came out without injuring him.

36 All the people were amazed and said to each other, "What is this teaching? With authority and power he gives orders to evil spirits and they come out!"

37 And the news about him spread throughout the surrounding area.

1월 9일 월요일

Luke 4:38~44

38 Jesus left the synagogue and went to the home of Simon. Now Simon's mother-in-law was suffering from a high fever, and they asked Jesus to help her.

39 So he bent over her and rebuked the fever, and it left her. She got up at once and began to wait on them.

40 When the sun was setting, the people brought to Jesus all who had various kinds of sickness, and laying his hands on each one, he healed them.

41 Moreover, demons came out of many people, shouting, "You are the Son of God!" But he rebuked them and would not allow them to speak, because they knew he was the Christ.

42 At daybreak Jesus went out to a solitary place. The people were looking for him and when they came to where he was, they tried to keep him from leaving them.

43 But he said, "I must preach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to the other towns also, because that is why I was sent."

44 And he kept on preaching in the synagogues of Judea.

1월 10일 화요일

Luke 5:1~11

1 One day as Jesus was standing by the Lake of Gennesaret, with the people crowding around him and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2 he saw at the water's edge two boats, left there by the fishermen, who were washing their nets.

3 He got into one of the boats, the one belonging to Simon, and asked him to put out a little from shore. Then he sat down and taught the people from the boat.

4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he said to Simon, "Put out into deep water, and let down the nets for a catch."

5 Simon answered, "Master, we've worked hard all night and haven't caught anything. But because you say so, I will let down the nets."

6 When they had done so, they caught such a large number of fish that their nets began to break.

7 So they signaled their partners in the other boat to come and help them, and they came and filled both boats so full that they began to sink.

8 When Simon Peter saw this, he fell at Jesus' knees and said, "Go away from me, Lord; I am a sinful man!"

9 For he and all his companions were astonished at the catch of fish they had taken,

10 and so were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Simon's partners. Then Jesus said to Simon, "Don'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catch men."

11 So they pulled their boats up on shore,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

1월 11일 수요일

Luke 5:12~16

12 While Jesus was in one of the towns, a man came along who was covered with leprosy. When he saw Jesus, he fell with his face to the ground and begged him,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13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I am willing," he said. "Be clean!" And

immediately the leprosy left him.

- 14 Then Jesus ordered him, "Don't tell anyone, but go, show yourself to the priest and offer the sacrifices that Moses commanded for your cleansing, as a testimony to them."
- 15 Yet the news about him spread all the more, so that crowds of people came to hear him and to be healed of their sicknesses.
- 16 But Jesus often withdrew to lonely places and prayed.

1월 12일 목요일

Luke 5:17~26

- 17 One day as he was teaching, Pharisees and teachers of the law, who had come from every village of Galilee and from Judea and Jerusalem, were sitting there. And the power of the Lord was present for him to heal the sick.
- 18 Some men came carrying a paralytic on a mat and tried to take him into the house to lay him before Jesus.
- 19 When they could not find a way to do this because of the crowd, they went up on the roof and lowered him on his mat through the tiles into the middle of the crowd, right in front of Jesus.
- 20 When Jesus saw their faith, he said, "Friend, your sins are forgiven."
- 21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began thinking to themselves, "Who is this fellow who speaks blasphemy? Who can forgive sins but God alone?"
- 22 Jesus knew what they were thinking and asked, "Why are you thinking these things in your hearts?"
- 23 Which is easier: to say, 'Your sins are forgiven,' or to say, 'Get up and walk?'
- 24 But that you may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 He said to the paralyzed man, "I tell you, get up, take your mat and go home."
- 25 Immediately he stood up in front of them, took what he had been lying on and went home praising God.
- 26 Everyone was amazed and gave praise to God. They were filled with awe and said, "We have seen remarkable things today."

1월 13일 금요일

Luke 5:27~39

- 27 After this, Jesus went out and saw a tax collector by the name of Levi sitting at his tax booth. "Follow me," Jesus said to him,
- 28 and Levi got up,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
- 29 Then Levi held a great banquet for Jesus at his house, and a large crowd of tax collectors and others were eating with them.
- 30 But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who belonged to their sect complained to his disciples, "Why do you eat and drink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 31 Jesus answered them, "It is not the healthy who need a doctor, but the sick.
- 32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tance."
- 33 They said to him, "John's disciples often fast and pray, and so do the disciples of the Pharisees, but yours go on eating and drinking."
- 34 Jesus answered, "Can you make the guests of the bridegroom fast while he is with them?"
- 35 But the time will come when the bridegroom will be taken from them; in those days they will fast."
- 36 He told them this parable: "No one tears a patch from a new garment and sews it on an old one. If he does, he will have torn the new garment, and the patch from the new will not match the old.
- 37 And no one pours new wine into old wineskins. If he does, the new wine will burst the skins, the wine will run out and the wineskins will be ruined.
- 38 No, new wine must be poured into new wineskins.
- 39 And no one after drinking old wine wants the new, for he says, 'The old is better.'"

1월 14일 토요일

Luke 6:1~11

- 1 One Sabbath Jesus was going through the grainfields, and his disciples began to pick some heads of grain, rub them in their hands and eat the kernels.
- 2 Some of the Pharisees asked, "Why are you

doing what is unlawful on the Sabbath?"

- 3 Jesus answered them, "Have you never read what David did when he and his companions were hungry?
- 4 He entered the house of God, and taking the consecrated bread, he ate what is lawful only for priests to eat. And he also gave some to his companions."
- 5 Then Jesus said to them, "The Son of Man is Lord of the Sabbath."
- 6 On another Sabbath he went into the synagogue and was teaching, and a man was there whose right hand was shriveled.
- 7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were looking for a reason to accuse Jesus, so they watched him closely to see if he would heal on the Sabbath.
- 8 But Jesus knew what they were thinking and said to the man with the shriveled hand, "Get up and stand in front of everyone." So he got up and stood there.
- 9 Then Jesus said to them, "I ask you, which is lawful on the Sabbath: to do good or to do evil, to save life or to destroy it?"
- 10 He looked around at them all, and then said to the man, "Stretch out your hand." He did so, and his hand was completely restored.
- 11 But they were furious and began to discuss with one another what they might do to Jesus.

1월 15일 주일

Luke 6:12~26

- 12 One of those days Jesus went out to a mountainside to pray, and spent the night praying to God.
- 13 When morning came, he called his disciples to him and chose twelve of them, whom he also designated apostles:
- 14 Simon (whom he named Peter), his brother Andrew, James, John, Philip, Bartholomew,
- 15 Matthew, Thomas, James son of Alphaeus, Simon who was called the Zealot,
- 16 Judas son of James, and Judas Iscariot, who became a traitor.
- 17 He went down with them and stood on a level place. A large crowd of his disciples was there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from all over Judea, from Jerusalem, and
- from the coast of Tyre and Sidon, who had come to hear him and to be healed of their diseases. Those troubled by evil spirits were cured,
- 18 and the people all tried to touch him, because power was coming from him and healing them all.
- 19 Looking at his disciples, he said: "Blessed are you who are poor, for yours is the kingdom of God.
- 20 Blessed are you who hunger now, for you will be satisfied. Blessed are you who weep now, for you will laugh.
- 21 Blessed are you when men hate you, when they exclude you and insult you and reject your name as evil, because of the Son of Man.
- 22 "Rejoice in that day and leap for joy, because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For that is how their fathers treated the prophets.
- 23 "But woe to you who are rich, for you have already received your comfort.
- 24 Woe to you who are well fed now, for you will go hungry. Woe to you who laugh now, for you will mourn and weep.
- 25 Woe to you when all men speak well of you, for that is how their fathers treated the false prophets.

1월 16일 월요일

Luke 6:27~38

- 27 "But I tell you who hear me: Love your enemies, do good to those who hate you,
- 28 bless those who curse you, pray for those who mistreat you.
- 29 If someone strikes you on one cheek, turn to him the other also. If someone takes your cloak, do not stop him from taking your tunic.
- 30 Give to everyone who asks you, and if anyone takes what belongs to you, do not demand it back.
- 31 Do to others as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 32 "If you love those who love you, what credit is that to you? Even 'sinners' love those who love them.
- 33 And if you do good to those who are good to you, what credit is that to you? Even 'sinners'

do that.

- 34 And if you lend to those from whom you expect repayment, what credit is that to you? Even 'sinners' lend to 'sinners,' expecting to be repaid in full.
- 35 But love your enemies, do good to them, and lend to them without expecting to get anything back. Then your reward will be great, and you will be sons of the Most High, because he is kind to the ungrateful and wicked.
- 36 Be merciful, just as your Father is merciful.
- 37 "Do not judge, and you will not be judged. Do not condemn, and you will not be condemned. Forgive, and you will be forgiven.
- 38 Give, and it will be given to you. A good measure, pressed down, shaken together and running over, will be poured into your lap. For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1월 17일 화요일

Luke 6:39~49

- 39 He also told them this parable: "Can a blind man lead a blind man? Will they not both fall into a pit?
- 40 A student is not above his teacher, but everyone who is fully trained will be like his teacher.
- 41 "Why do you look at the speck of sawdust in your brother's eye and pay no attention to the plank in your own eye?
- 42 How can you say to your brother, 'Brother, let me take the speck out of your eye,' when you yourself fail to see the plank in your own eye? You hypocrite, first take the plank out of your eye, and then you will see clearly to remove the speck from your brother's eye.
- 43 "No good tree bears bad fruit, nor does a bad tree bear good fruit.
- 44 Each tree is recognized by its own fruit. People do not pick figs from thornbushes, or grapes from briers.
- 45 The good man brings good things out of the good stored up in his heart, and the evil man brings evil things out of the evil stored up in his heart. For out of the overflow of his

heart his mouth speaks.

- 46 "Why do you call me, 'Lord, Lord,' and do not do what I say?
- 47 I will show you what he is like who comes to me and hears my words and puts them into practice.
- 48 He is like a man building a house, who dug down deep and laid the foundation on rock. When a flood came, the torrent struck that house but could not shake it, because it was well built.
- 49 But the one who hears my words and does not put them into practice is like a man who built a house on the ground without a foundation. The moment the torrent struck that house, it collapsed and its destruction was complete."

1월 18일 수요일

Luke 7:1~10

- 1 When Jesus had finished saying all this in the hearing of the people, he entered Capernaum.
- 2 There a centurion's servant, whom his master valued highly, was sick and about to die.
- 3 The centurion heard of Jesus and sent some elders of the Jews to him, asking him to come and heal his servant.
- 4 When they came to Jesus, they pleaded earnestly with him, "This man deserves to have you do this,
- 5 because he loves our nation and has built our synagogue."
- 6 So Jesus went with them. He was not far from the house when the centurion sent friends to say to him: "Lord, don't trouble yourself, for I do not deserve to have you come under my roof.
- 7 That is why I did not even consider myself worthy to come to you. But say the word, and my servant will be healed.
- 8 For I myself am a man under authority, with soldiers under me. I tell this one, 'Go,' and he goes; and that one, 'Come,' and he comes. I say to my servant, 'Do this,' and he does it."
- 9 When Jesus heard this, he was amazed at him, and turning to the crowd following him, he said, "I tell you, I have not found such

great faith even in Israel."

- 10 Then the men who had been sent returned to the house and found the servant well.

1월 19일 목요일

Luke 7:11~17

- 11 Soon afterward, Jesus went to a town called Nain, and his disciples and a large crowd went along with him.
- 12 As he approached the town gate, a dead person was being carried out--the only son of his mother, and she was a widow. And a large crowd from the town was with her.
- 13 When the Lord saw her, his heart went out to her and he said, "Don't cry."
- 14 Then he went up and touched the coffin, and those carrying it stood still. He said, "Young man, I say to you, get up!"
- 15 The dead man sat up and began to talk, and Jesus gave him back to his mother.
- 16 They were all filled with awe and praised God. "A great prophet has appeared among us," they said. "God has come to help his people."
- 17 This news about Jesus spread throughout Judea and the surrounding country.

1월 20일 금요일

Luke 7:18~27

- 18 John's disciples told him about all these things. Calling two of them,
- 19 he sent them to the Lord to ask, "Are you the one who was to come, or should we expect someone else?"
- 20 When the men came to Jesus, they said, "John the Baptist sent us to you to ask, 'Are you the one who was to come, or should we expect someone else?'"
- 21 At that very time Jesus cured many who had diseases, sicknesses and evil spirits, and gave sight to many who were blind.
- 22 So he replied to the messengers, "Go back and report to John what you have seen and heard: The blind receive sight, the lame walk, those who have leprosy are cured, the deaf hear, the dead are raised, and the good news is preached to the poor."
- 23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fall away on account of me."

24 After John's messengers left, Jesus began to speak to the crowd about John: "What did you go out into the desert to see? A reed swayed by the wind?"

25 If not, what did you go out to see? A man dressed in fine clothes? No, those who wear expensive clothes and indulge in luxury are in palaces.

26 But what did you go out to see? A prophet? Yes, I tell you, and more than a prophet.

27 This is the one about whom it is written: "I will send my messenger ahead of you, who will prepare your way before you."

1월 21일 토요일

Luke 7:28~35

28 I tell you, among those born of women there is no one greater than John; yet the one who is least in the kingdom of God is greater than he."

29 (All the people, even the tax collectors, when they heard Jesus' words, acknowledged that God's way was right, because they had been baptized by John.)

30 But the Pharisees and experts in the law rejected God's purpose for themselves, because they had not been baptized by John.)

31 "To what, then, can I compare the people of this generation? What are they like?"

32 They are like children sitting in the marketplace and calling out to each other: "We played the flute for you, and you did not dance; we sang a dirge, and you did not cry."

33 For John the Baptist came neither eating bread nor drinking wine, and you say, 'He has a demon.'

34 The Son of Man came eating and drinking, and you say, 'Here is a glutton and a drunkard, a friend of tax collectors and "sinners."'

35 But wisdom is proved right by all her children."

1월 22일 주일

Luke 7:36~50

- 36 Now one of the Pharisees invited Jesus to have dinner with him, so he went to the Pharisee's house and reclined at the table.
- 37 When a woman who had lived a sinful life in that town learned that Jesus was eating at the Pharisee's house, she brought an alabaster jar of perfume,
- 38 and as she stood behind him at his feet weeping, she began to wet his feet with her tears. Then she wiped them with her hair, kissed them and poured perfume on them.
- 39 When the Pharisee who had invited him saw this, he said to himself, "If this man were a prophet, he would know who is touching him and what kind of woman she is--that she is a sinner."
- 40 Jesus answered him, "Simon,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Tell me, teacher," he said.
- 41 "Two men owed money to a certain moneylender. One owed him five hundred denarii, and the other fifty.
- 42 Neither of them had the money to pay him back, so he canceled the debts of both. Now which of them will love him more?"
- 43 Simon replied, "I suppose the one who had the bigger debt canceled." "You have judged correctly," Jesus said.
- 44 Then he turned toward the woman and said to Simon, "Do you see this woman? I came into your house. You did not give me any water for my feet, but she wet my feet with her tears and wiped them with her hair.
- 45 You did not give me a kiss, but this woman, from the time I entered, has not stopped kissing my feet.
- 46 You did not put oil on my head, but she has poured perfume on my feet.
- 47 Therefore, I tell you, her many sins have been forgiven--for she loved much. But he who has been forgiven little loves little."
- 48 Then Jesus said to her, "Your sins are forgiven."
- 49 The other guests began to say among themselves, "Who is this who even forgives sins?"

50 Jesus said to the woman, "Your faith has saved you; go in peace."

1월 23일 월요일

Luke 8:1~15

- 1 After this, Jesus traveled about from one town and village to another,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The Twelve were with him,
- 2 and also some women who had been cured of evil spirits and diseases: Mary (called Magdalene) from whom seven demons had come out;
- 3 Joanna the wife of Cuza, the manager of Herod's household; Susanna; and many others. These women were helping to support them out of their own means.
- 4 While a large crowd was gathering and people were coming to Jesus from town after town, he told this parable:
- 5 "A farmer went out to sow his seed. As he was scattering the seed, some fell along the path; it was trampled on, and the birds of the air ate it up.
- 6 Some fell on rock, and when it came up, the plants withered because they had no moisture.
- 7 Other seed fell among thorns, which grew up with it and choked the plants.
- 8 Still other seed fell on good soil. It came up and yielded a crop, a hundred times more than was sown." When he said this, he called out, "He who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 9 His disciples asked him what this parable meant.
- 10 He said, "The knowledge of the secrets of the kingdom of God has been given to you, but to others I speak in parables, so that, 'though seeing, they may not see; though hearing, they may not understand.'
- 11 "This is the meaning of the parable: The seed is the word of God.
- 12 Those along the path are the ones who hear, and then the devil comes and takes away the word from their hearts, so that they may not believe and be saved.
- 13 Those on the rock are the ones who receive the word with joy when they hear it, but they have no root. They believe for a while,

but in the time of testing they fall away.

- 14 The seed that fell among thorns stands for those who hear, but as they go on their way they are choked by life's worries, riches and pleasures, and they do not mature.
- 15 But the seed on good soil stands for those with a noble and good heart, who hear the word, retain it, and by persevering produce a crop.

1월 24일 화요일

Luke 8:16~21

- 16 "No one lights a lamp and hides it in a jar or puts it under a bed. Instead, he puts it on a stand, so that those who come in can see the light.
- 17 For there is nothing hidden that will not be disclosed, and nothing concealed that will not be known or brought out into the open.
- 18 Therefore consider carefully how you listen. Whoever has will be given more; whoever does not have, even what he thinks he has will be taken from him."
- 19 Now Jesus' mother and brothers came to see him, but they were not able to get near him because of the crowd.
- 20 Someone told him, "Your mother and brothers are standing outside, wanting to see you."
- 21 He replied, "My mother and brothers are those who hear God's word and put it into practice."

1월 25일 수요일

Luke 8:22~25

- 22 One day Jesus said to his disciples, "Let's go over to the other side of the lake." So they got into a boat and set out.
- 23 As they sailed, he fell asleep. A squall came down on the lake, so that the boat was being swamped, and they were in great danger.
- 24 The disciples went and woke him, saying, "Master, Master, we're going to drown!" He got up and rebuked the wind and the raging waters; the storm subsided, and all was calm.
- 25 "Where is your faith?" he asked his disciples. In fear and amazement they asked one

another, "Who is this? He commands even the winds and the water, and they obey him."

1월 26일 목요일

Luke 8:26~39

- 26 They sailed to the region of the Gerasenes, which is across the lake from Galilee.
- 27 When Jesus stepped ashore, he was met by a demon-possessed man from the town. For a long time this man had not worn clothes or lived in a house, but had lived in the tombs.
- 28 When he saw Jesus, he cried out and fell at his feet, shouting at the top of his voice, "What do you want with me, Jesus, Son of the Most High God? I beg you, don't torture me!"
- 29 For Jesus had commanded the evil spirit to come out of the man. Many times it had seized him, and though he was chained hand and foot and kept under guard, he had broken his chains and had been driven by the demon into solitary places.
- 30 Jesus asked him, "What is your name?" "Legion," he replied, because many demons had gone into him.
- 31 And they begged him repeatedly not to order them to go into the Abyss.
- 32 A large herd of pigs was feeding there on the hillside. The demons begged Jesus to let them go into them, and he gave them permission.
- 33 When the demons came out of the man, they went into the pigs, and the herd rushed down the steep bank into the lake and was drowned.
- 34 When those tending the pigs saw what had happened, they ran off and reported this in the town and countryside,
- 35 and the people went out to see what had happened. When they came to Jesus, they found the man from whom the demons had gone out, sitting at Jesus' feet, dressed and in his right mind; and they were afraid.
- 36 Those who had seen it told the people how the demon-possessed man had been cured.
- 37 Then all the people of the region of the Gerasenes asked Jesus to leave them, because they were overcome with fear. So

he got into the boat and left.

- 38 The man from whom the demons had gone out begged to go with him, but Jesus sent him away, saying,
39 "Return home and tell how much God has done for you." So the man went away and told all over town how much Jesus had done for him.

1월 27일 금요일

Luke 8:40~48

- 40 Now when Jesus returned, a crowd welcomed him, for they were all expecting him.
41 Then a man named Jairus, a ruler of the synagogue, came and fell at Jesus' feet, pleading with him to come to his house
42 because his only daughter, a girl of about twelve, was dying. As Jesus was on his way, the crowds almost crushed him.
43 And a woman was there who had been subject to bleeding for twelve years, but no one could heal her.
44 She came up behind him and touched the edge of his cloak, and immediately her bleeding stopped.
45 "Who touched me?" Jesus asked. When they all denied it, Peter said, "Master, the people are crowding and pressing against you."
46 But Jesus said, "Someone touched me; I know that power has gone out from me."
47 Then the woman, seeing that she could not go unnoticed, came trembling and fell at his feet. In the presence of all the people, she told why she had touched him and how she had been instantly healed.
48 Then he said to her, "Daughter, your faith has healed you. Go in peace."

1월 28일 토요일

Luke 8:49~56

- 49 While Jesus was still speaking, someone came from the house of Jairus, the synagogue ruler. "Your daughter is dead," he said. "Don't bother the teacher any more."
50 Hearing this, Jesus said to Jairus, "Don't be afraid; just believe, and she will be healed."

51 When he arrived at the house of Jairus, he did not let anyone go in with him except Peter, John and James, and the child's father and mother.

- 52 Meanwhile, all the people were wailing and mourning for her. "Stop wailing," Jesus said. "She is not dead but asleep."
53 They laughed at him, knowing that she was dead.
54 But he took her by the hand and said, "My child, get up!"
55 Her spirit returned, and at once she stood up. Then Jesus told them to give her something to eat.
56 Her parents were astonished, but he ordered them not to tell anyone what had happened.

1월 29일 주일

Luke 9:1~9

- 1 When Jesus had called the Twelve together, he gave them power and authority to drive out all demons and to cure diseases,
2 and he sent them out to preach the kingdom of God and to heal the sick.
3 He told them: "Take nothing for the journey—no staff, no bag, no bread, no money, no extra tunic.
4 Whatever house you enter, stay there until you leave that town.
5 If people do not welcome you, shake the dust off your feet when you leave their town, as a testimony against them."
6 So they set out and went from village to village, preaching the gospel and healing people everywhere.
7 Now Herod the tetrarch heard about all that was going on. And he was perplexed, because some were saying that John had been raised from the dead,
8 others that Elijah had appeared, and still others that one of the prophets of long ago had come back to life.
9 But Herod said, "I beheaded John. Who, then, is this I hear such things about?" And he tried to see him.

1월 30일 월요일

Luke 9:10~17

- 10 When the apostles returned, they reported to Jesus what they had done. Then he took them with him and they withdrew by themselves to a town called Bethsaida,
- 11 but the crowds learned about it and followed him. He welcomed them and spoke to them about the kingdom of God, and healed those who needed healing.
- 12 Late in the afternoon the Twelve came to him and said, "Send the crowd away so they can go to the surrounding villages and countryside and find food and lodging, because we are in a remote place here."
- 13 He replied,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They answered, "We have only five loaves of bread and two fish--unless we go and buy food for all this crowd."
- 14 (About five thousand men were there.) But he said to his disciples, "Have them sit down in groups of about fifty each."
- 15 The disciples did so, and everybody sat down.
- 16 Taking the five loaves and the two fish and looking up to heaven, he gave thanks and broke them. Then he gave them to the disciples to set before the people.
- 17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and the disciples picked up twelve basketfuls of broken pieces that were left over.

1월 31일 화요일

Luke 9:18~27

- 18 Once when Jesus was praying in private and his disciples were with him, he asked them, "Who do the crowds say I am?"
- 19 They replied,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say Elijah; and still others, that one of the prophets of long ago has come back to life."
- 20 "But what about you?" he asked. "Who do you say I am?" Peter answered, "The Christ of God."
- 21 Jesus strictly warned them not to tell this to anyone.
- 22 And he said, "The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by the elders,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the law, and he must be killed and on the third day be raised to life."
- 23 Then he said to them all: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 24 For whoever want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e will save it.
- 25 What good is it for a man to gain the whole world, and yet lose or forfeit his very self?
- 26 If anyone is ashamed of me and my words, the Son of Man will be ashamed of him when he comes in his glory and in the glory of the Father and of the holy angels.
- 27 I tell you the truth, some who are standing here will not taste death before they see the kingdom of God."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중현의 만나 2017년 1월

Copyright© 2017 Choonghyun Church

발행인: 편집인: 권명옥, 집필진: 이기성 정용만 이수경 김원기

발행처: 중현교회 교육훈련원(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7길 40(역삼동) 전화 552-8200)[비매품]